

세계 경제 전망, 2008~2013*

권 오 복

호주 농업자원경제국(ABARE)는 지난 3월 5일-6일 양일간 가진 농업전망대회에서 중장기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하였다. 2008년 세계 경제는 전년도보다 둔화된 4.0% 성장할 것이며 신흥시장 경제가 세계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주 농업자원경제국(ABARE)는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 농업전망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본 내용은 전망대회에서 발표된 중장기 세계 경제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8년 세계경제는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문제에 따른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정 등으로 전년도 4.9%보다 다소 둔화된 4.0% 성장할 것으로 가정하며, 2009년에는 4.3%, 2009~2013년간 평균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08년 미국 경제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흥시장경제 (emerging market economies)가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세계경제전망

2007년 세계 경제 높은 성장세 보여

2007년 세계 경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었다. 이러한 성장세는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시장과 하반기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 의미가 크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경제는 주택시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주택투자지출과 소비지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2007년 후반부터 급속하게 냉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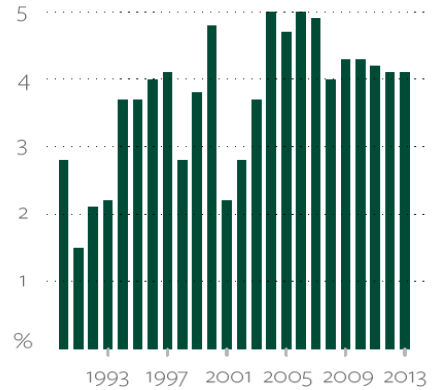
* 본 내용은 호주 농업자원경제연구소(ABARE)가 2008년 3월 발간한 보고서 Australian Commodities의 Economic Overview 부분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연구위원이 발췌 번역한 것이다. (obkwon@krei.re.kr, 02-3299-4210)

2007년 중국 경제는 연평균 11.7% 성장하면서 또 다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중국 경제 성장은 중국 정부가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취한 여러 가지 조치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2007년 중국 정부는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섯 차례의 이자율 인상과 열 차례에 걸쳐 은행지급준비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같은 해 일본 경제는 실질성장률이 1.9%에 이르면서 계속 확장하였다.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 경제 역시 건실한 성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서유럽 국가들과 일본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이들 국가들의 경제 전망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모아진다.

그 밖에 다른 지역 국가들의 경제 또한 건실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국제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가격이 강세를 유지함에 따라 남미,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2007년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은 전년의 5%보다 약간 뒤진 4.9%로 추산된다.

그림 1 세계의 경제 성장



2008년 세계 경제 다소 둔화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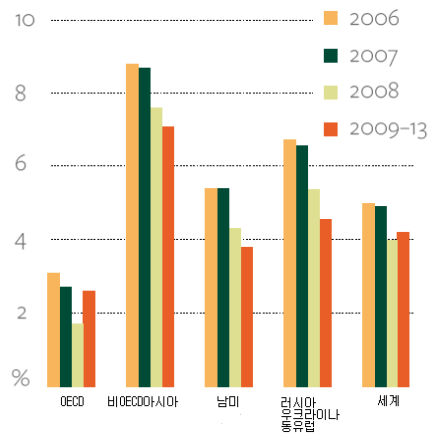
2008년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데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은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 준다. 미국 경제는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취약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담보시장에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인해 주택투자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반면 에너지 가격의 강세, 주택가격과 미 달러화 가치의 현저한 하락 등으로 인해 민간 소비지출이 약화될 수 있다.

서유럽 경제 성장세도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유로화가 미 달러화와 같은 다른 국가 화폐에 비해 지나치게 평가절상되었고, 미국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과급영향에서 기인하는 유럽 금융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8년 일본 경제는 수출의 완만한 회복세와 세계 경제 성장에 따른 기업의 투자 지출 확대에 따라 완만한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OECD 주요국들의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흥시장 경제국들의 빠른 경제성장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경제 성장세는 2008년에도 지속될 전망이고, 인도 경제 역시 연평균 8%대의 고도성장이 기대된다.

다른 신흥시장경제국들의 경제 성장 속도도 계속 강세를 떨 것으로 예상되는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된다.

그림 2 세계 주요 지역의 경제 성장



2. 중기 성장 전망

여러 가지 경제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2008년 세계 경제는 2009년 4.3%로 회복하기 전에 4%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중기적(2009~2013년)으로는 세계 경제가 연평균 4.2% 성장하는 것을 가정하였는데 이 같은 수치는 2001~06년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세계 경제 성장관련 중요 이슈

앞으로 몇 년간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문제, 급속하게 경제성장 중인 일부 아시아 국가의 인플레이션 대두, 세계적인 경상수지 적자 누적은 세계 경제 전망을 어렵게 만드는 위험요소이다.

세계 금융시장 불안 증대

미국의 비우량주택 담보대출문제, 일부 아시아 국가의 인플레이션 대두, 세계적인 경상수지 적자 누적이 세계 경제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의 부실대출에 따른 손실의 범위와 발생가능성의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미국에서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연이은 상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대출과 연관이 있는 대출 이자율이 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그러한 부실대출에 따른 손실의 범위와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이 미국 국내외에서 증대하여 경제 주체들의 시장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물론 일본, 유로지역에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였고, 주식시장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의 영향은 아시아의 신흥시장경제에도 파급되어 대출비용 상승, 주식가치 하락, 자본 유입의 감소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US Federal Reserve Bank)과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과 같은 세계의 주요 은행들은 자본시장에 현금 유입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활동, 특히 세계 주요 경제의 소비지출과 투자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다.

불확실성의 핵심은 자금 대출비용과 대출에 따른 위험 증가가 은행들의 대출능력과 의욕에 영향을 주는 정도인데, 신용시장 조건이 갑작스럽게 경색되면 위험도가 큰 시장 부문과 기업 및 가계에 대한 기업들의 일반대출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비우량주택담보대출과 연관이 큰 미국과 서유럽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밖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이 퍼질 수 있다.

표 1 세계 주요 거시경제지표 가정

구 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제성장률									
OECD	%	3.1	2.7	1.7	2.4	2.8	2.7	2.7	2.6
미국	%	2.9	2.2	1.3	2.4	3.0	3.0	3.0	3.0
일본	%	2.4	1.9	1.2	1.7	2.0	1.8	1.6	1.5
서유럽	%	2.8	2.6	1.6	1.9	2.1	2.0	2.0	1.9
독일	%	2.9	2.4	1.8	2.0	1.8	1.7	1.6	1.5
프랑스	%	2.0	1.9	1.8	2.0	2.2	2.2	2.0	2.0
영국	%	2.8	3.1	1.9	2.2	2.5	2.5	2.5	2.5
한국	%	5.0	4.8	4.5	4.7	4.5	4.4	4.4	4.4
뉴질랜드	%	1.6	2.8	2.3	2.7	2.5	2.5	2.5	2.5
개발도상국	%	7.7	7.7	6.8	6.6	6.3	6.2	5.9	5.9
비OECD아시아	%	8.8	8.7	7.6	7.6	7.3	7.1	6.7	6.7
동남아시아	%	5.8	5.9	5.2	5.5	5.4	5.3	5.1	4.9
중국	%	11.1	11.4	9.7	9.5	9.0	8.5	8.0	8.0
인도	%	9.7	9.0	8.0	8.3	8.0	8.0	7.7	7.7
세계	%	5.0	4.9	4.0	4.3	4.3	4.2	4.1	4.1
미국 우량 금리	%	8.0	8.1	6.5	6.8	7.0	7.5	7.5	7.5
미 달러 환율									
대 엔화	엔	116	118	110	112	114	115	115	115
대 유로화	유로	0.79	0.73	0.65	0.68	0.72	0.75	0.78	0.79

자료: ABARE, IMF, OECD

신용시장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슈로 등장

빠른 경제성장에도 세계 상품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생산여력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하고 중앙은행에서 이자율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겪고 있는 OECD 회원국들에서는 그런 걱정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많은 신흥시장경제에서는 아직도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편이다.

분명히 상품시장에서는 물가 상승 기미가 확실한 것처럼 보인다. 상품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06년 이래 원유와 금속가격이 높게 형성된 가운데 식품가격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경제 성장세가 다소 완화되고 그에 따라 상품수요 증대가 다소 진정될지라도 많은 나라의 상품시장에서 공급 증가가 수요 증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계 원유시장에서 소비와 생산이 간신히 균형을 이루면서 원유가는 2008년 2월 하순 서부 텍사스 중질유 기준(WTI)으로 배럴당 99달러로 상승하였다. 원유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공급측면의 충격이나 지역적 긴장이 조성되면 국제 원유가는 더 높이 치솟을 것이며 그에 따라 수입국들의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상품시장에서는 물가 상승 기미가 확실한 것처럼 보인다. 상품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06년 이래 원유와 금속가격이 높게 형성된 가운데 식품가격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걱정은 식품과 에너지가 전체 소비지출의 50% 가까이 되지만 금융당국의 대처 능력이 미흡한 신흥시장경제에서 더 심각하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식품과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다른 물가와 임금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 물가상승압력에 대응하여 중국과 같은 많은 신흥시장경제 중앙은행들은 긴축정책을 펴면서 이자율을 높였다.

표 2 세계 증시 현황

구 분	주식시장 지수		
	52주간 최고치 ¹⁾	2008년 2월초	변동률
OECD			
미국	14,198	12,743	-10.2
일본	18,300	13,497	-26.2
유럽	4,558	3,867	-15.1
호주	6,852	5,843	-14.7
동아시아			
중국	6,396	4,535	-29.1
한국	2,065	1,635	-20.8
대만	9,860	7,674	-22.2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2,830	2,647	-6.5
말레이시아	1,516	1,393	-8.1
필리핀	3,874	3,294	-15.0
싱가폴	3,906	3,008	-23.0
태국	915	811	-11.4
인도	20,873	18,243	-12.6

주: 2007년 2월초부터 2008년 2월초까지 최고 지수

세계 경상 수지 불균형이 위엄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불균형도 세계 경제의 하방 조정 요인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실질 환율이 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은 현재 수준에서 감소하지 않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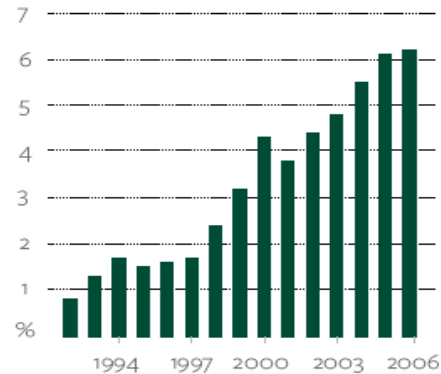
세계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불균형도 세계 경제의 하방 조정 요인이다. 미국의 경우 달러화의 현저한 평가절하와 내수의 소폭 증대로 말미암아 2007년 후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5.1%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실질 환율이 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은 현재 수준에서 감소하지 않을 것 같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의 산유국들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단기는 물론 중기적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2008년도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1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이 지속되면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자금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미 달러화의 평가절하와 이자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둘째, 대규모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국내 산업이 수입경쟁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시장에서 보호주의를 등장시킬 수 있다.

미국 달러 가치 하락이 미국의 무역 및 경상수지 불균형 시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출 및 수입 경쟁 업체의 이득은 결국 교역 상대국 경제의 손실이 될 것이다. 미국 달러화의 급락은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제 투자자들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 자본 투자를 줄이거나 자본을 미국에서 철수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미국의 이자율은 상당히 오를 것이고 그에 따라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텐데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다른 국가들의 경제 전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3 GDP 대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비중



세계 경제의 중기 전망

2008년 세계 경제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 수년간 세계 경제는 1970년대 초반 이래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다. 최근 세계 경제 성장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국제경제에서 무역개방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했다는 점이다. 2001년 이래 GDP 대비 무역의 비중이 10% 가량 증가하여 현재에는 60% 가량 된다. 다시 말하면 세계의 무역의존도가 평균 60%가량 된다는 얘기다. 둘째, 1990년대에는 세계 경제 성장의 50%를 차지했던 신흥시장경제가 현재는 2/3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셋째, 빠른 경제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 소수가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 걸쳐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세계경제 성장의 변동성이 완화된다는 점이다.

적절한 재정정책 운용, 금융정책의 변동성 완화, 금융체계의 안정성 증대, 비즈니스 및 규제 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구조변화가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세계의 경기순환주기가 이전에 비해 더욱 길어지고 변화도 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문제에서 야기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경기순환주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 확장의 측면에서 많은 국가가 성공을 거두고 현재의 세계 경제 둔화가 2008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 같지는 않지만 소득 불균형, 고령화, 기후변화 등과 같은 수많은 걱정거리가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의 장기 성장에 심각한 도전을 던져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 간 경제 이득의 분배와 그것이 세계경제의 장기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기술진보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무역 및 금융의 지속적인 개방으로 세계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빈곤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세계 경제성장으로 소득과 부가 OECD 국가와 신흥시장경제 내

최근 세계 경제 성장의 특징은,

- 1) 국제경제에서 무역개방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했다;
- 2) 신흥시장경제의 비중이 2/3을 차지한다;
- 3) 빠른 경제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 걸쳐 있다; 는 점들이다.

에 집중되어 왔다.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 신흥시장경제는 물론 선진국들의 국제화와 무역자유화가 방해받을 수 있고 생산성 향상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세계 인구의 많은 수가 교육과 경제에 대한 기회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년간 기후변화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가 확충되어야 하며 발전소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통제를 위한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적응 능력 향상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과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핵심 쟁점은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주요 배출국간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국제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온실가스 완화와 적응 노력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세계 온난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노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요국의 경제 전망

2008년 미국 경제 성장 둔화 전망

2007년 말과 2008년 초 발표된 경제지표에 의하면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과 주택시장에서의 조정에 의해 미국 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자 및 기업의 투자심리와 제조업 활동 역시 위축되고 있다.

미국은 2007년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같은 해 3/4분기 이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4.9%p 이르다가 연말에 경기가 급강하하여 성장률이 0.6%에 머물렀다. 미국에서 과거 수년간 주택투자가 경기의 발목을 잡아왔지만 수출, 기업투자, 그리고 개인소비지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2007년 말과 2008년 초 발표된 경제지표에 의하면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과 주택시장에서의 조정에 의해 미국 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지표가 열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 및 기업의 투자심리와 제조업 활동 역시 위축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미국에서 저당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주택투자 부문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주택소비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출은 미국 달러화의 평가절하에 힘입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 전반이 침체상태이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은 덜한 편이다. 에너지와 식품가격의 움직임을 제외하면 달러화 가치 하락에 의한 수입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25%p의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며 2008년 상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미 행정부는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올

2월 중순 1,680억 달러의 자금지출 법안에 서명했으며 동 법안에 규정된 금액에 더해 1%p 가량의 추가 자금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 경제는 2008년에는 1.3%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반면 2009년에는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기업 및 가계지출 회복이 경제활동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가 약 2.4% 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7년 2.2%와 2006년 2.9%와 대조를 이룬다.

미국 경제의 중기 전망

2013년까지 중기적으로 미국경제는 과거 2007년 말까지 5년간 이어진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연 평균 3% 성장대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의 최근 문제는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미국의 금융 체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예를 들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와 자금 차입자 모두의 위험을 줄이고 이에 따라 화폐시장의 유동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미국의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기여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적자가 경제에 주는 충격이 될 것이다. 다행인 것은 미국의 예산적자가 2005-06년 2,480억 달러에서 2006-07년 1,630억 달러로 줄어든다는 예상이다. 전체 GDP 대비 미국의 예산적자는 2005-06년 1.9%에서 2006-07년 1.2%로 낮아졌다.

미국 내 수요 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적자가 늘었지만 미국 경제가 훗날 서서히 회복한다고 가정하면 재정정책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이 향상되면 저축이 늘고 무역 및 경상수지적자가 축소될 것이다. 반면에 재정 적자가 중기적으로도 지속되면 무역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계속될 전망이다.

급격히 성장하는 아시아 경제 전망 밝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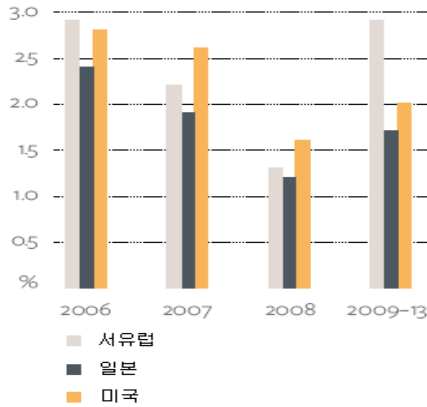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 속에서 OECD 회원국들의 경제가 정체될 전망이다. 이로써 회원국의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비OECD 회원국들의 경제 성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 수출이 자국 GDP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데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22%이다. 이것은 외부 수출수요, 특히 미국의 수출수요 등락에 따라 중국 수출이 하방조정위험 압력을 받고 그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경제 전망은 긍정적이다. 비OECD 회원국 전체로는 경제성장률이 2007년 8.7%에서 2008년, 2009년에는 7.6%에 이를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비OECD아시아 국가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1%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08년 9.7%, 2009년 9.5%로 전망되며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2008년 8.0%, 2009년 8.3%로 예상된다.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경제의

전체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 전망은 긍정적이다. 비OECD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이 2007년 8.7%에서 2008년과 2009년에는 7.6%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4 OECD 경제 성장 추이



중국의 급격한 공업화와 일부 제조업의 중국으로의 이전으로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점은 중국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제성장률은 2008년 5.2%, 2009년 5.5%로 전망된다.

현재 상태로 볼 때 지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명암이 교차된다. 어두운 부분은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효과로서 아시아의 비OECD 회원국의 수출수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전자제품 수출 수요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밝은 부분은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이 언제나 예상치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도 경제의 성장 전망 역시 기업 이익이 투자지출을 촉진할 경우 기대보다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중국 경제 성장 전망

지난 수년간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확대되었는데 주요 품목에 있어서 중국의 수입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중국의 급격한 공업화와 함께 일부 품목의 제조업이 선진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옴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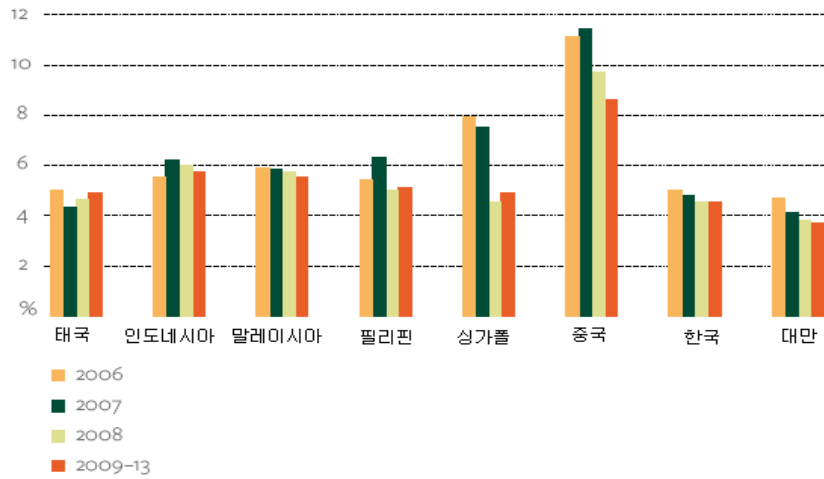
더 중요한 점은 중국의 1인당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고연평균 소득이 3,125 ~ 3,750달러에 달하는 전문직 종사자를 중산층으로 분류할 때 2020년까지 중산층 비율이 40% (인구로는 5억 9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일 중산층이 그 정도로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계속 진전되면 중국 내에서 자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고 다른 나라에게는 수출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호주가 중장기 경제전망을 실시하는데 있어 중국 경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8.6% 성장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중국의 무역과 경제 규모가 확대되자 국제사회로부터 중국 화폐 가치의 절상 압력이 증대하고 있다. 2005년 7월부터 중국의 환율정책이 바뀌었지만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은 더욱 늘어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중국이 아직도 환율을 조작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2008년 2월 중순 미국 달러화 대비 중국의 환율은 1달러당 7.19 위안이었는데 2005년에는 달러당 8.11위안이었다. 이것은 그동안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다소 올랐음을 의미한다.

그림 5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성장



중국은 위안화 절상 노력과 함께 이자율 및 환율 변화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 위안화가 계속 평가 절상되면 가계의 구매력이 향상되고 중국내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고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에 따른 비난도 줄어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경제 성장의 아방조정 요인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데에는 고정자산투자와 수출 증가가 부분적으로 기여하였다. 중국은 GDP 대비 고정자산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고정자산투자 수준이 높은 편인데 고정자산투자가 높아 투자 과열이 우려되기도 한다. 투자가 과열되면 설비과잉이 되고 기업 및 금융 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취약성을 떨 수 있다. 중국의 무역흑자가 과도하게 누적됨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중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보호주의를 몰고 올 수도 있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려면 경제성장의 원천을 좀 더 내수 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은 40% 정도인데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소비의 비율은 미국 70%, 영국 66%, 일본 50% 등이다.

중국의 GDP대비 가계소비 비율은 브라질(55%), 인도네시아(65%), 러시아(55%)

중국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취약성을 가질 수 있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려면 경제성장의 원천을 좀 더 내수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등 신흥시장경제국들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중국에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거기에서 수반되는 위험요인을 상쇄하기 위해 가계저축이 높은 편이다. 1990년대 초반 이래 중국의 민간소비는 연간 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 경제는 연평균 10% 성장하였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아직까지도 중국은 금융 부문, 법률시스템, 공공기업 등에서 획기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이 성공을 거두면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이고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목 및 설비 제한에 걸려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가계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재정정책을 개혁하여 사회 안전과 건강관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개인들의 예방적인 저축을 줄일 수 있다. 보험부문이 발전되면 가계가 위험요소를 통합하고 실직과 의료지출과 같은 충격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본의 경제성과 여전이 취약

일본의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는 악화되고 있다. 일본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국제경제가 계속 하향국면을 나타내고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미국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가 계속 평가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경제는 2006년에 2.4% 성장한 바 있는데 2007년 중반 이후에는 둔화 국면을 보이고 있다. 2007년 2/4분기 일본경제가 0.5% 후퇴한데 이어 3/4분기 실질GDP는 0.4% 성장에 그쳤으며 2007년 전체적으로는 일본경제가 2.3% 성장하는 데 머물렀다.

가계소비와 같은 국내 수요에 관한 최근 자료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긴 하지만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는 악화되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과의 연관성은 낮지만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은 일본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전망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여 2008년 일본의 경제는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9년에는 1.2%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의 일본 경제는 하향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이처럼 일본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계속 하향국면을 나타내고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미국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가 계속 평가절상되기 때문이다.

수년간 일본경제가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디플레이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소비자 물가가 한동안 상승하였지만 2007년 하반기 주요 소비자물가지수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행은 2007년 초반 이래 기준 이자율을 0.5%로 유지시키고 있다. 이자율이 언제인가는 상승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사라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한 이자율은 상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간 일본은 재정정책 수단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였는데 GDP 비율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로 따질 때 일본의 재정적자 비율은 선진국 중 가장 높으며 2008년 말 GDP 대비 일본의 공공지출적자 비율은 182%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은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경제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그러한 예이다.

일본 경제가 중기적으로 계속 성장하느냐의 여부는 경제개혁에 달려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감소를 고려할 때 경제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경제의 중기적 성장원천은 생산성 증대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경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비교역부문 (non traded sector)의 경제개혁이 요구된다. 만약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경제가 더욱 둔화될 것이고 재정부문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다. 2009~2013년 일본 경제는 연평균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4. 호주 경제 전망

2007년 후반 호주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는데 실질 GDP 기준으로 2007년 2/3분기 0.7%에 이어 3/4분기에는 1% 성장했다. 농업, 임업, 수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는데 이 세 개 산업이 3/4분기 1% 성장 중 0.4%p를 보탤다. 호주의 무역수지는 2/4분기 39억 달러의 적자에 이어 3/4분기에도 4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경상수지도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15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앞으로도 호주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자원에 대한 세계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경제활동이 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과 임금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007~08년 호주 경제는 4.25% 성장한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2008~0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기적으로는 연평균 3.0%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자원에 대한 세계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경제활동이 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과 임금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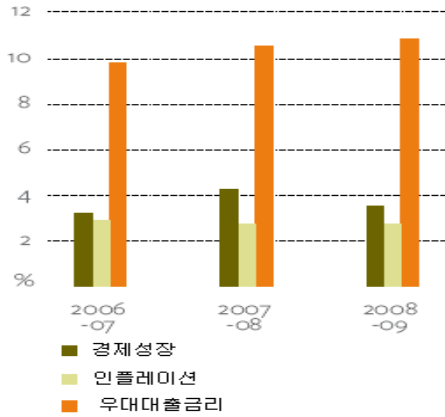
2007년 전년 대비 호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3/4분기 1.9%에 이어 4/4분기에는 3% 상승하여 물가상승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07년 하반기 물가가 상승한 데에는 자동차용 연료비와 휴일 여행경비, 임차 시설비의 증가 등이 크게 기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채소, 약품, 오디오, 컴퓨터 기기 가격은 하락하였다.

호주도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최종재 생산자물가지수 증가율은 3/4분기 2.4%에서 4/4분기에는 2.8%로 늘어났다. 호주산 상품의 물가는 4.2% 상승한 반면 수입부문 물가는 5.4% 하락하였다.

당분간 물가 압력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호주의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7~08년과 2008~09년 호주의 물가상승률은 2.75%로 예

상되며 2012~13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5%로 전망되었다.

그림 6 호주 경제 주요 지표



원률 단기 전망

지난 12개월간 호주 달러는 미 달러화 대비 상당정도 평가 절상되었다. 호주 달러가치는 2007년 3월 77센트(미국 달러 기준)에서 2007년 11월에는 93센트로 상승하였으며 2008년 1월 중순 미 달러화 대비 호주 달러 가치는 87센트로 약간 하락하였다. 일본 엔화에 대해서 호주 달러는 2007년 3월초 90엔에서 11월초 107엔으로 상승하였다가 2008년 1월 중순 93엔으로 다시 하락하였다.

2006~07년에 78센트였던 호주 달러 가치는 2007~08년 1월부터 8월까지 87센트로 추정되며 2008년 1월 중순 이래 미 달러화 대비 호주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여 2월 중순 호주 1달러는 미국 달러 91센트와 교환되었다. 이처럼 호주달러 가치가 상승한 데에는 미국 달러화 약세가 크게 기여했다. 미국 달러는 2007년 3월에 1달러당 0.76유로에서 2008년 3월 중순 0.69유로로 그 가치가 하락하였다.

최근 미국 달러가치의 움직임은 미국에서 시장에 대한 기대심리와 단기적인 이자율 움직임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2007년 중반 이후 미국의 주택담보비우량대출 문제 때문에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화폐정책 완화와 더불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로 인해 미국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단기적으로 화폐정책을 더욱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달러 가치가 계속 상승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계속해서 호주 교역조건 강세이다. 2007년 3/4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호주의 교역조건은 3% 향상되었는데 이것은 2004년 같은 분기보다 23% 더 높은 수준이다.

2007년 중반 이후 미국의 주택담보비우량대출 문제 때문에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화폐정책 완화와 더불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로 인해 미국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표 3 호주 주요 거시지표 전망

구 분	단위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2012~13
경제성장	%	3.0	3.2	4.3	3.5	3.0	3.0	3.0	3.0
물가상승	%	3.2	2.9	2.8	2.8	2.5	2.5	2.5	2.5
이자율 ¹⁾	%	9.1	9.8	10.5	10.8	10.0	9.5	9.0	9.0
대미환율	달러	0.75	0.78	0.87	0.83	0.80	0.78	0.77	0.76

주: 1) 대기업에 대한 우대대출이자율

2) 2007~08년 이후는 ABARE 전망치

자료: ABARE

단기적으로 호주의 환율은 앞에서 언급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며 호주와 세계의 주요 국가 간 이자율 차이는 호주 달러화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호주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일 것이다. 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과 경제 성장 전망 하에서 호주의 우량대출금리 (prime lending rates)는 2007~08년 10.5%에서 2008~09년에는 10.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가 2008년 하반기부터 회복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 달러화는 강세로 돌아서고 호주 달러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호주 달러 가치는 교역조건, 즉 주요 상품의 국제시세에 따라 변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점차 하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몇 년간 세계 시장에서 호주 상품의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 달러 가치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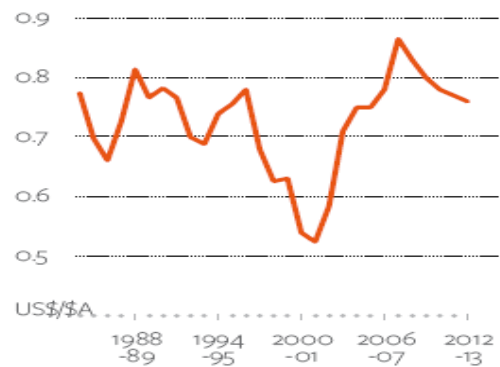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미국 달러화 대비 호주 달러 가치는 2007~08년 87센트, 2008~09년 83센트로 전망된다. 미국 달러화 가치의 움직임이 금융시장의 심리에 크게 좌우되는데 이로 인해 호주 환율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지난 12개월간 호주 달러는 2007년 3월 77센트에서 11월 초 93센트까지 상승한 경향이 있다. 1983년 변동환율제 이래 호주 달러는 미 달러 대비 연간 10센트 내외의 변동을 보였다.

호주 달러의 중기 전망

중기적으로도 호주 달러 가치는 교역조건, 다른 국가와의 이자율 차이, 호주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012~13년 호주의 우대 대출 금리는 6.5% 선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호주와 미국과의 대출금리 차이가 현재 3.6%에서 2012~13년에는 1.0%로 줄어듦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교역조건은 현재의 높은 수준에서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2~13년경에 미 달러화 대비 호주의 환율은 76센트로 전망되었다.

미국 경제가 2008년 하반기부터 회복한다면 미국 달러화의 강세와 호주 달러화의 약세가 예상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호주 달러 가치는 교역조건, 즉 주요 상품의 국제시세에 따라 변했다.

그림 7 호주의 환율 전망



참고자료

Jammie Penm and Marina Kim, "Economic Overview," Australian Commodities, Vol. 15, No.1, March Quarter 2008.